

500년 역사, 강진 전라병영성축제 17일 팡파르

무안군 『청렴 해피톡(청렴 모니터링)』 본격 운영

조선시대 전라도 육군 총지휘부였던 전라병영성의 역사와 호국정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제29회 전라병영성축제'가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강진군 병영면 전라병영성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는 '역사가 살아있는, 전라병영 액션파크'를 주제로, 전통과 현대, 체험과 공연이 결합된 참여형 역사문화축제로 펼쳐질 예정이다.

이번 축제는 단순히 공연을 보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참여하고 몸으로 느끼는 프로그램이 많다는 점이 특징이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구성돼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큰 호응이 예상된다.

축제장 전체를 하나의 '역사 놀이터'처럼 만들어 누구나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전라병영성의 역사와 호국의 의미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면서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

모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올해 새롭게 주목받는 공간은 성 내에 위치한 '연희당'이다.

조선시대 성내의 휴식 장소이자 연희장으로서 역할을 했던 연희당은 전라병영성 복원정비사업을 통해 새롭게 모습을 갖췄다.

연희당에서 바라보는 성내 전경은 뛰어난 경관으로 사진 명소로 주목받고 있어 축제 기간 많은 관람객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연희당에서는 차 시음회와 즉석 사진 인화, 스탬프존, 보물찾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18일 오후에 시작되는 '병영성 입성식 퍼레이드'다.

병마절도사가 말을 타고 입성하는 장면과 취타대와 기수들이 행렬을 이루며 이동하는 모습은 마치 조선시대로 시간여행을 온 듯한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전운재 기자



강진 전라병영성 축제 사진

/강진군 기획홍보실 제공

무안군은 민원 처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부패 취약요인을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청렴 해피톡(청렴 모니터링)』을 본격 운영한다. 이번 제도는 국민권의위원회 청렴도 평가 대상 업무를 중심으로 민원인과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양방향 설문조사를 실시해 응답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운영기간은 2026년 4월부터 12월 까지이며, 공사·용역·물품, 보조금, 재·세정, 인·허가 등 주요 민원업무를 대상으로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된다. 조사 방법은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 카카오톡, 이메일, 전화 등을 활용한 다채널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민원 접수 단계와 처리 완료 이후를 구분해 건별 2회 조사(사전·사후)를 실시함으로써, 민원 처리 전·후의 인식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서용운 기자

농업경영체 미등록 시 직불금 10% 감액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사진

/목포 시청 제공

국립농산물관질관리원 목포·신안사무소(소장 정찬복, 이하 목포·신안농관원)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성 제고와 농업인 불이익 방지를 위해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공익직불금 등 각종 농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정보이며, 등록 농업인은 농지정보·재배품목·재배면적 등 영농상황이 바뀌면 의무적으로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익직불금이 10% 감액될 예정으로 농업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목포·신안농관원은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하계작물 재배시기에 맞춰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 안내방송, 현수막 게시, 안내문 배포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정기 변경신고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박성태 기자

함평군, '전남형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참여단체 모집

전남 함평군이 '2026년 전남형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에 참여할 청년단체를 이달 2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함평군은 "청년 주도형 정책 사업인 '전남형 청년마을 사업'에 도전할 청년단체를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청년단체 또는 기업(개인사업자 제외)으로, 대표가 청년(19~49세)

이고 사업 참여 인력 중 청년 비율이 80%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모집 분야는 ▲청년 공간구축 ▲프로그램 운영 ▲네트워크 및 홍보 ▲일자리 창출 등 총 4개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단체·기업은 오는 24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함평군청 인구경제과로 방문하거나 전자우편(kgyeon21@korea.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군은 사업계획서 검토 등을 거쳐 선정한 청년단체를 이달 중 전라남도에 추천할 예정이며, 이후 도에서 실시하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지 발표심사를 거쳐 5월 중 최종 대상자를 확정할 방침이다.

최종 선정된 청년단체·기업에는 연간 1억 원씩 최대 3년간 3억 원의 사업비가 지급된다.

/서용운 기자

영암 대학생 14명, 36일간 영암서 '로컬 브랜딩' 실험 시작

영암군이 대학생의 시각으로 지역의 특색을 살린 로컬 브랜딩을 추진한다. 군은 최근 달빛정춘마루에서 군 관계자와 경희대학교 지도교수 및 학생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사회혁신스쿨 로컬브랜딩 간담회'를 열고 본격적인 협업에 들어갔다. 이번 프로젝트는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재학생 14명

과 지도교수가 참여해 4월 7일부터 5월 13일까지 35박 36일 동안 영암 머물며 지역 자원을 활용한 브랜딩 과제를 수행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군청 내 주요 부서별로 제안한 협업 과제들이 공유됐다. ▲영암 방문의 해 관련 홍보 콘텐츠 개발 ▲도기박물관 및 영암물 등 지역 특산물 유통 활성화

방안 ▲매일시장 및 청년문화거리 ▲마을 역사 아카이빙 존 구상 개발 등 지역 내 체류형 공간 조성 등을 주제로 실무진과 의견을 나눴다.

학생들은 앞으로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각 분야에 적합한 브랜딩 전략과 콘텐츠를 발굴할 예정이다.

/이기영 기자

신안군, 안좌교회 지역 아동을 향한 따뜻한 나눔

안좌교회(목사 이옥현)가 지역 아동을 위해 매년 따뜻한 나눔을 이어가고 있다.

신안군복지재단(이사장 강정희)은 최근 안좌교회로부터 지역 아동을 위한 지정기탁금 200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금은 교인들이 정성껏 마련한 헌금으로 마련된 것으로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용될 예정이다.

이옥현 목사는 "교인들의 마음을 모아 마련한 정성이 아이들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하는 나눔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신안군복지재단 강정희 이사장은 "오랜 기간 지역 아동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이어온 안좌교회에 깊이 감사드리며, 소중한 기탁금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의미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박성태 기자

가고싶은
열로우시티

장성호
수변길

영암군출장근대리

수변 데크길(왼쪽)

황금빛출장근대리

수변 데크길(오른쪽)

열로우 시티 Jangseong 장성군